신문지·알코올 한 방울
습기·냄새·세균 싸~악

장마철 '뽀송뽀송한 집안' 만들기

새내기 주부인 이지영(30·목포시)씨는 장마로 연일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집안청소를 하는데 고민이 많다. 청소를 열심히 해도 집안 곳곳에서 쾨쾨한 냄새와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장마철에는 습기로 인해 집안 곳곳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돼 위생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더욱 손쉽고 효과적으로 습한 분위기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실내 관리법을 알아봤다.

◇실내 습기 제거는 선풍기=실내의 쾨쾨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실내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다.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은 선풍기를 이용해 강제로 통풍시키고 외출할 때 가끔 난방을 한 채 선풍기를 바깥쪽을 향해 틀어주면 집안의 습기를 없앨 수 있다.

에어컨을 이용해 습기제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에어컨에는 제습작용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켤 때 옷장과 이불장의 문을 같이 열어 두면 좋다.

마시고 남은 녹차 찌꺼기는 습기를 막는 것은 물론 장롱 귀퉁이 등에 걸어두면 냄새 흡수에도 도움이 된다. 또 양초나 아로마 향초를 켜두면 집안 습기와 나쁜 냄새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다.

◇눅눅한 벽지엔 알코올=실내습도가 높아지면서 벽지가 들뜨고 그 사이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들뜬 곳을 바늘로 구멍을 뚫어 공기를 빼내고 마른 헝겊으로 잘 닦아준다.

벽지가 눅눅하다면 물과 알코올을 4 : 1 비율로 섞어 뿌려주고, 이미 벽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곰팡이제거제를 뿌리면 된다.

빗물이 고여 악취를 풍기는 창틀, 갈라진 벽 사이에는 실리콘을 이용하거나 양초를 발라두면 효과가 좋다.

◇배수구 소독엔 끓는 물=싱크대 배수망에 낀 오물은 악취와 곰팡이의 원인이 된다. 야채나 밥알 등 음식찌꺼기가 붙어있어 칫솔로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 수시로 물을 끓여 배수구에 부어주면 살균·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고 배수구가 막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배수구 악취가 심할 때는 소독용 알코올을 뿌리면 냄새제거에 효과가 좋다.

마시고 남은 녹차 티백으로 개수대에 낀 물때를 닦아내면 악취제거에 도움이 된다. 물걸레질로 제거가 안 되는 곰팡이는 알코올을 수건에 묻혀 문질러 닦아낸 다음 마른 걸레로 물기를 제거해 주면 된다.

◇옷장 습기 제거는 신문지로=습기 찬 옷장은 곰팡이와 벌레가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한다. 땀이 밴 옷은 옷장에 방치하지 말고 곧바로 세탁한다. 또 옷이나 이불 사이에는 신문지 한 장씩을 끼어두고 습기가 많은 서랍장 밑바닥에도 신문지를 깔아두면 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다.

습기는 바닥부터 차오르므로 제습제를 둘 때는 옷장 아래쪽에 둔다. 옷장을 정리할 때 습기에 강한 무명이나 합성섬유는 맨 밑에, 모직은 중간, 비단류는 맨 위에 놓으면 옷에 습기가 차 손상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또 옷은 될 수 있으면 옷걸이에 걸어두고 가끔 선풍기 바람을 쐬어주면 좋다.

◇욕실 곰팡이와 물때는 솔로=여름철 욕실은 물 사용이 잦아 곰팡이와 물때가 생기기 쉽다. 집에서 상처 소독용으로 많이 쓰는 에탄올을 헝겊에 발라 닦아주면 깨끗해진다. 타일 틈새에 낀 거뭇거뭇한 곰팡이는 솔로 빡빡 문질러 준다.

바닥은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을 구석구석 뿌린 뒤 30분쯤 지나 물청소를 한다. 평소 목욕을 한 뒤에도 욕실 벽 중간부터 바닥까지 뜨거운 물을 뿌려주고 환기시키면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다.

화장실 타일 사이에 양초를 발라주면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곰팡이 제거제를 뿌린 후 2~3시간 뒤 걸레나 헝겊으로 닦아내면 곰팡이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

수도꼭지는 레몬이나 오렌지 껍질로 닦으면 곰팡이 균을 없애는 동시에 수돗물 때문에 생긴 녹까지 없앨 수 있다.

◇가구와 가전제품에는 왁스칠=소형가구나 세탁기, 오디오, TV 등의 가전제품은 벽에서 10㎝ 정도 떼어 놔야 습기가 덜 찬다. 가전제품 바닥에는 스티로폼을 깔아두면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장롱, 소파 등의 가구에는 왁스칠을 해두면 습도가 높아져도 뒤틀림을 예방할 수 있다.

컴퓨터는 쓰지 않더라도 매일 30분 이상 전원을 켜두고 주변에 제습제를 놓는 것이 좋고, 소파는 통풍시킨 뒤 세균제거제를 뿌려두면 좋다. 카메라를 보관할 때는 비닐백에 건조제를 넣어 보관하면 먼지와 습기, 염분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제습제는 옷장 아래쪽에

보송보송한 옷이 그립다면 제습제나 녹차 찌꺼기를 옷장에 넣어두면 된다. 습기는 바닥부터 차오르므로 제습제를 둘 때는 옷장 아래쪽에 둔다.

옷·이불은 신문지로 제습

옷이나 이불 사이에는 신문지 한 장씩을 끼어두고 습기가 많은 서랍장 밑바닥에도 신문지를 깔아두면 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다. 옷은 될 수 있으면 옷걸이에 걸어두고 가끔 선풍기 바람을 쐬어주면 좋다.

욕실 곰팡이 세제로 빡빡

여름철 욕실은 물 사용이 잦아 곰팡이와 물때가 생기기 쉽다. 타일 틈새에 낀 곰팡이는 솔로 빡빡 문질러 주고 바닥은 락스 등을 구석구석 뿌린 뒤 30분후에 물청소를 한다.

싱크대 배수구 뜨거운 물로

주방 싱크대 배수구는 장마철 악취가 나기 쉬운 곳이다. 수시로 물을 끓여 배수구에 부어주면 살균·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고 배수구가 막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무공해 천연세제로 생활속 오염물질 말끔

화학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 속 오염 물질을 말끔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없을까. 세정력도 좋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무공해 천연세제를 살펴보자.

◇기름때와 찌든 때엔 식빵=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을 활용한다. 설거지 전에 빵조각으로 그릇을 미리 닦아두면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닦인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벽지도 식빵으로 살살 문지르면 말끔해지고, 식빵을 쿠킹호일로 감싼 뒤 냉장고 속에 넣어두면 냄새제거에도 효과가 있다.

◇살균·소독엔 식초=물 1컵과 식초 1/4컵을 섞어 전자레인지 안에 골고루 뿌리고 전자레인지를 3분 정도 작동해 스펀지로 닦아낸다. 배수구에 물이 잘 내려가지 않으면 거름망을 빼고 배수구 속에 베이킹소다 1/2컵과 식초 1컵을 천천히 부은 뒤 5분 후에 따뜻한 물을 4~8ℓ 정도 부으면 찌꺼기가 쓸려 간다. 또 도마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 문지른 다음 식초를 분무하면 거품이 일어나면서 소독이 된다.

손때 묻은 벽지는 식빵으로 그릇 기름기 귤 껍질로 닦고 도마 식초 뿌리면 살균 소독

◇묵은 때에는 달걀 껍데기=입구가 좁은 병을 씻을 때는 달걀껍데기를 잘게 부숴 넣고 물을 약간만 부어 여러 번 흔든 뒤 물로 헹궈내면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 하수구나 개수대를 닦을 때도 달걀껍데기를 수세미에 올려 비벼 닦으면 묵은 때까지 말끔하게 닦인다.

◇기름기 제거는 귤 껍질=그릇에 기름기가 묻어 있을 때는 키친타월 대신 귤 껍질로 닦아낸 뒤 설거지하면 좋다. 귤 껍질은 기름기는 물론 그릇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까지 빠르게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쾨쾨한 냄새 제거엔 식초=장마철에는 세탁물에서 쾨쾨한 냄새가 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 섬유유연제를 쓰는데, 섬유유연제 대신 식초를 사용해도 효과적이다. 마지막 헹굼물에 식초를 3~4방울 떨어뜨리면 된다. 식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옷에 시큼한 냄새가 남지 않는다.

◇두루 활용되는 베이킹 소다=베이킹소다를 물에 약간 풀어 넣으면 연수기 물처럼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다. 이 물에 빨래를 하면 때가 잘 빠지고, 그릇이나 싱크대의 묵은 때를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이다. 김치통이나 반찬통에 밴 음식 냄새도 베이킹 소다 용액으로 세척하면 없어진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